그만해도 족하다

효자제일교회 전도사·홍 순관

그 때에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내가 목도하였거니와 내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그 때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 하셨사오니 천지간에 무슨 신이 능히 주의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이까 구하옵나니 나로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편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의 연고로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기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네 눈으로 그 땅을 보라 네가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하고 그를 담대케 하며 그를 강경케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네가 볼 땅으로 그들로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 때에 우리가 벳브을 맞은편 골짜기에 거하였었느니라 [개역, 신명기 3:21-29]

신 명기라는 책의 이름 뜻이 무엇입니까? ‘신’ 자가 무슨 ‘신’ 자일까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아마 ‘귀신 신’ 자가 아닐까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사실은 ‘펼칠 申’ 자 입니다. 펼친다는 것은 ‘재차’ 라는 뜻도 있고 ‘차세히 살핀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들을 다시 되풀이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세 권에 들어 있는 내용들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작별하기 전에 한 번 더 되풀이 하면서 설명한 책이 신명기입니다. ‘두 번째 되풀이한 명령’ 혹은 ‘두 번째 되풀이한 율법’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신명기가 가지고 있는 큰 특징 중에 한가지는 예수님께서 가장 애용하셨던 책이라는 점입니다. 특별히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여러 가지로 물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 있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주 너의 하나님을 섬기고 그를 시험치 말라 하셨느니라’ 이런 모든 구절들을 신명기에서 인용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애용하셨던 책이기에 더욱 애착이 가는 책입니다.

신명기는 전체적으로 모세가 지나온 과거를 회고하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1장에서부터 3장까지는 지나온 역사를 회고합니다. 그 다음 부분에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주셨던 여러 가지 율법을 다시 되풀이 합니다.

애굽의 고센 지역을 출발해서 가야 할 목표는 가나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지방에서 출발해서 가나안까지 간다면 가장 손쉬운 길은 바닷가를 따라서 가는 길입니다. 바닷가를 따라서 가면 아주 평탄합니다. 마지막에 산길을 조금 올라가면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는데 일주일이나 열흘이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길로 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다른 길로 둘러 간 이야기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설교 제목이 무엇이었는데 기억하십니까? ‘돌쳐서 바닷가에 장막을 쳐라’였습니다. 똑바로, 좋은 길로 가면 되는데 바로가 보니까 이상하게 빙빙 돌더라 말입니다. 몇 번 돌다가 결국 바닷가에 가서 멈추어 섰더라. 바로가 그걸 보고 뭐라고 생각했죠? “아니 저런 머저리 같은 녀석들을 내가 내보냈단 말인가?” 그래서 다시 추격해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득하여 광야에 갈렸다고 생각하고 따라왔는데 사실은 그렇게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이끌고 가면 바로가 분명히 쫓아올 거다. 그 바로에게 마지막 일격을 가하고 떠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홍해 사건이 벌어진 것이죠.

홍해 사건이 벌어지고 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이 있는 곳으로 곧장 내려갔습니다. 거기까지 약 50일이 걸렸습니다. 거기에 1년간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위시하여 여러 가지 계명들과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 후에 그 유명한 가데스바네아까지 올라갑니다. 가데스바네아에서 무슨 일이 생겼죠? 그것을 빼면 출애굽 역사가 안됩니다. 가데스바네아라는 지역은 거기서 조금만 올라가면 목적지가 되는데 정탐꾼 12명을 보냈더니 돌아와서 하는 소리가 “우리는 도저히 싸워서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하고 반항하며 모세를 들로 치려했던 바로 그 장소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들에게 이렇게 말 안 듣는 백성들을 향하여 “좋다. 그렇게 못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그럼 너희들은 들어가 지 마라. 너희들이 다 죽을 때까지 지금부터 광야를 헤매다가 너희들이 다 죽고 그 후손들만 이 땅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얼마 동안은 광야 생활하게 하죠? 40년인데 어디를 어떻게 방황하며 40년을 돌아다녔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한 후에 요단강 건너편 모압평지까지 왔습니다. 여기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를 회고하면서 당부를 한 것이 신명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 있었던 모든 일들을 다 설명하고 모세는 거기서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만 요단강을 건너서 여호수아의 인도 하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가데스바네아라는 지명과 몇 군데 지명들은 확실하게 알 수 있지만 모세가 유언을 남긴 곳이나 심지어 시내산도 확실하게 아는 것은 아닙니다. 대강 짐작만 하는 정도입니다. 시내산도 성지순례 한다고 가면 옛날에 모세가 떨기나무를 보았던 자리라는 곳도 있고 근처에 유명한 기도원이 서 있는데 엄밀히 말하면 현재의 시내산이 모세가 있었던 그 시내산인지조차도 확실치 않습니다. 그냥 추정일 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쳐 갔던 경로도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습니다. 좀 분명하면 좋을텐데 왜 그런 것이 명확치 않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내산이 그보다 훨씬 위쪽 다른 곳에 있는 산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비슷한 이름을 가진 다른 산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명확치 않은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사천년쯤 전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같은 지명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 보면 적어도 몇 천년 전의 그 지명이 지금 지명하고 일치한다고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명이 명확치 않다는 것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가르쳐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좀 분명하면 좋을텐데 분명치 않은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령 예를 든다면 성경의 원본은 지금 하나도 남아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성경 원본이 남아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원본이 아닌 사본으로 몇 천년 된 것들도 값으로 주고 살 수 없습니다. 어마어마한 가격에다가, 누가 손도 못 대도록 엄중하게 보관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원본이 나왔다면 모르긴 몰라도 거기에 기록된 내용보다는 원본 자체를 더 소중하게 여길지도 모릅니다. 우상시 여길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그런 의미에서 다 감추어 버린 것 같습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혹은 무덤에 누웠을 때 입었던 옷이라고 하는 옷이 많이 있습니다. 진짜일까요?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다 감추어 버리셨다고 생각합니다. 남아 있을 가능성이 없다고 봅니다. 심지어는 성탄절, 12월 25일이 성탄절이 아니다 하고 떠드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혹시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예수님께서 언제 출생하셨는지 잘 모릅니다. 12월 25일이 진짜 예수님의 생일인지 아닌지도 모릅니다. 단지 그 날을 그렇게 정해서 기념하고 있을 뿐입니다. 성탄절도 그렇고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남아 있으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충실하는 것보다 그런 것에 사람들의 신경이 더 쏠릴 거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그런 것들 일체를 감추어버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서론은 이쯤하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를 회고하면서 앞으로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얘기를 가데스바네아의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얘기,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던 얘기, 가데스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여서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고 다녔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40년 동안 이렇게 방황하게 된 원인과 그 과정을 간략하게 이야기 하고 맨 마지막에 여호수아를 세우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승리를 줄 것이니까 이것을 믿고 3장 22절에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그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도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을 인도해 오신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삶을 분명히 인도하시고 너희들에게 이기게 해 주실 것이라는 이야기로서 지나온 40년의 역사를 회고를 마칩니다.

그런데 그 역사를 회고하고 마치려다 보니까 모세가 굉장히 섭섭한 거 있죠. 어떻게 본다면 모세의 소원

이기도 하고 어떻게 본다면 욕심이기도 합니다. 무슨 욕심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인도해 왔는데 하나님 나도 이들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해주십시오’라는 욕심이 생깁니다. 모세에게 이런 욕심이 생기는 것이 잘못됐습니까? 이때까지 얼마나 많은 고생을 겪으며 이 백성들을 인도해 왔는데 여기서 다 들어가고 자기는 못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려서 ‘하나님 나도 들어가서 이 땅을 밟게, 이 레마는 땅, 이 좋은 땅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했는데 26절에 하나님의 대답이 있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만해도 족하니

예. 더 이상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확실한 대답을 하시는 겁니다. 그만해도 족하니 더 이상 말하지 말라. 너는 들어갈 수 없다는 얘깁니다. 하나님께서 왜 못 들어가게 합니까? 못 들어가게 하는 이유를 모세가 뭐라고 하느냐니까 26절에 **‘너희의 연고로 내게 진노하사’**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때문에 내가 지금 못 들어가는 거다’라는 겁니다. 지도자가 자신의 잘못을 이렇게 백성들에게 미루어도 됩니까? 왜 못 들어가는지 아시죠?

신 광야의 트리바라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하나님께 엄청나게 원망을 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이렇게 거칠게 나올 때에 모세도 백성들의 원망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마는 그 때는 건디기가 좀 어려웠던 모양입니다. 하나님께서 반석을 치라고 하셨을 때에 모세의 죄는 뭘니까? 하나님께서 바위를 치라고 하셨는데 모세가 두 번 쳤다고 하나님께서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셨단 말입니다. 좀 심하지 않느냐는 얘깁니다. 모세도 사람인데 그럴 수도 있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얼마나 모세를 괴롭히고 모세 말을 듣지 않는데 그 말을 듣고 사실은 화가 난 거죠. 그래서 바위를 두 번 쳤는데 그 일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세의 잘못이 뭐라고 했죠? 바위를 두 번 쳤다? 아닙니다. 두 번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다는 것이 모세의 잘못입니다. 그런 일로 인해서 생긴 일인데 일이 그렇게 된 것은 바로 너희들의 잘못 때문이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나로 하여금 이런 잘못을 범하게 했다라는 이야기인데 결국은 그 일로 인해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 놓고 아마 하나님께서도 조금 미안(?)했던 모양입니다. 27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죠? 들어가지는 못한다. 다만? 한마디로 요약하면 구경이나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들어가고 싶다니까 안된다. 들어가지는 못한다. 그러나 구경은 해라’ 그래서 높은 산에 올라가서 바라보는 것으로 모세는 만족해야 했습니다. 대신에 그 다음 일을 맡을 여호수아를 담대하게 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오늘 읽은 본문의 요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거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그동안 모세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 많은 원망과 불평과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하는 그 어려움을 다 극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까지 인도해왔는데 단 한 번 반석을 두 번 친 것 때문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 심한 거 아니냐는 얘깁니다.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해보지 않았는데 어느 분이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구나. 언젠가 이걸 한 번 설명해야 되겠구나 하고 생각을 하게 됐었는데 마침 장본인이 오늘 오셨네요. 때 맞춰서 잘 오셨습니다. 가만히 한 번 따져보십시오. 하나님 이거 너무 하지 않습니까? 모세가 이뤄 놓은 업적과 잘못을 비교했을 때 너무 심하지 않느냐는 생각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모세의 죄는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죄입니다. 다른 사람이 이랬다면 용서가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아닌 지도자가 백성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은 것은 용서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더 확인하고 싶은 사람은 민수기 20장에 그 내용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한 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도자가 백성들 앞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은 죄, 이것은 엄밀히 말해서 용서받을 수 없는 큰

죄란 뜻입니다. 참 두려운 말씀입니다. 목사님이 이 강대상에서 화를 내고 분을 냈다? 그러면 모세가 반석을 두 번 친 것하고 똑같은 죄가 되죠? 전도사는 좀 바줄런가 모르겠습니다. 그럴 줄 알았으면 그냥 집사만 하고 말건데 괜히 전도사 한다고 나왔다가... 어차피 저도 각오를 단단히 하긴 했습니다. 절대로 이런 일은 하지 않으리라고 작심을 하고 신학교 갔습니다마는 사람의 작심이 얼마나 갈런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참 두려운 말씀입니다.

목사하고 전도사에게만 상관이 되고 여러분들은 아무 관계없죠? 관계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 혼자 야단맞기 싫어서 말씀 드리는데요 분명히 관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야 하느냐? 여러분들이 지도적인 입장에 섰을 때에 여러분들에게 배워야 하는 학생들과 여러분들이 가르쳐야 할 이웃들에게, 특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웃들 앞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끼리끼리 싸우는 건 그래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싸우다가도 언제 중지하라고요? 집사님끼리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목사님 들어오셔도 괜찮습니다. 장로님 들어오셔도 괜찮습니다. 새신자들이 나타나면 무조건 중지해야 합니다. 신앙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 싶은 어린 아이들이 나타났죠? 중지해야 합니다. 중지하지 않으려면 목에다 연자맷들을 감고 물에 빠지라고 그랬습니다. 어린 아이 하나를 실족케 하는 것이나 지도자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은 것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받은 벌이 너무 크지 않느냐는 것도 이런 면에서 보면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한 죄가 이렇게 크다는 것을 알리란 뜻도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뱅뱅 돌았습니다. 어린 아이들이나 아니면 그 이유를 알지 못하는 후손들이 자꾸 물었을 겁니다. 우리 목표가 가나안이라면서 왜 안 가고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이 곳을 자꾸 돌고 있습니까? 부모들이 아마 자식들에게 대답하기가 굉장히 부끄러웠을 겁니다. 그러나 얘기는 정확하게 해 주어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부끄럽지만 가데스바네아에서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죄로 이렇게 돌고 있는 거다.

그 때 하나님께 반항했던 자들이 다 죽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죽어야 할 사람이 모세입니다. 후손들이 그걸 보고 아마 질문하겠지요? 아니,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들은 그런 죄가 있어서 죽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도 죽어야 합니까라고 안 물었겠어요? 그때 뭐라고 설명할거냐? 바로 이 대답이 나오는 겁니다. 지도자가 백성들 앞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한 죄, 그것이 바로 우리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잘못이라고 설명을 했을 겁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이것이 가장 큰 죄목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모세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어떻게 본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섭섭한 감정을 가질 수도 있고 정말 너무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본인 스스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말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모세는 섭섭한 감정을 깨끗이 덮고, 아니, 섭섭한 감정조차 없이 나머지 일들을 잘 수행합니다. 나머지 일이란 것은 신명기 4장부터 시작해서 신명기 끝까지 모세가 해야 할 일들을 그대로 잘 감당했다는 뜻입니다.

모세를 따르면서 날마다 반항하고 불평하고 원망했던 그들이 나중에 여호수아에게 보면 순종을 잘 합니다. 여호수아를 따라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잘 했습니다. 물론 여호수아 사후에는 또 문제가 생깁니다만 모세를 따라 다니면서 그렇게 불순종했던 이스라엘이 여호수아를 따르면서 어떻게 그렇게 잘 순종했을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특별히 은혜를 베푸신 이유도 있겠지만 모세가 마무리를 잘 지어준 탓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에 모세가 그렇게 기꺼이 순종하기란 어떻게 본다면 좀 어려웠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뭔가 애착을 가지고 오랫동안 고생했던 일을 어느 날 갑자기 손을 놓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특별히 우리가 고생을 많이 했고 애를 많이 썼던 일 같으면 그것을 그만두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개인적인 일이라서 말씀드리기가 조금 미안합니다만 제가 오랫동안 고등학생들만 상대로 성경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아이들 몇 십 명을 데리고 수련회를 저 혼자서 했거든요. 다른 선생님들은 도와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냥 성경책 한 권만 펴두고 3박 4일을 성경공부만 합니다. 다른 분들이 물어요. 그래도 아이들이 옴니

까? 글썄요, 오는 거는 저희들 사정이고 나는 앉아 가르치기만 하면 되는데 오긴 잘 와요. 심지어 어느 여름에는 “얘들아 우리도 보충수업 하자” 했더니 좋다고 그래요. 포항 시내 여름 보충수업은 유명합니다. 주일에 교회 오기도 어려운 관국이니까 심한 경우는 방학이 없습니다. 방학이 딱 하루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죠. “올 여름에는 학교 너무 빼먹는 것도 미안하니까 우리도 보충수업하자” 그랬죠.

학교 보충수업이 보통 6시에 마칩니다. 가방 메고 교회로 바로 와서 저녁 먹고 7시부터 한 세시간 정도 매일 모였죠. 새로 오신 전도사님, 강도사님이 보고 “참 이상합니다. 어떻게 성경공부 하러 교회로 다 옵니까?” 제가 볼 땐 너무나 당연한데 다른 분들이 볼 때는 이상한가봐요. 그럴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저녁 먹으면서 어느 집사님이 제 머리 쳐다보고 한참 웃던데 머리 윗부분이 원래는 푹신푹신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쿠션이 없어졌더라구요. 아, 이상하다 했는데 이 앞머리 센 것하고 윗 부분 쿠션이 사라진 게 그 아이들 공부 가르치느라고 고생한 탓입니다. 3박 4일 가르치려면 보통 6개월 동안 준비해야 합니다. 굉장히 보람 있었고 평생 하라 해도 기쁨으로 할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참 열심히 했죠.

주위의 격려와 칭찬을 들으면서 멋진 세월을 보냈는데 단 한 분의 압력으로 그걸 못하게 됐죠. 몇 년 동안 알게 모르게 직, 간접으로 압력이 들어와도 굴하지 않고 잘 견뎠는데 어느 해는 어쩔 수 없이 손을 놓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목회 방침이니까 순응은 하겠는데 손을 놓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걸 어떻게 그만 둔단 말입니까? 순종하기로 했는데 한 석달 동안 제가 밤잠을 못 잤습니다. 어떻게 이 일을 그만 둔단 말입니까? 아이들이 “왜 올해는 수련회 안 합니까?” 하고 졸라대는데 제가 할 말이 없었어요. 차마 사실대로 말을 할 수가 없었지요. 한 석 달 동안 참느라고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거의 밤잠을 못 잘 정도로 힘이 들었는데 이것이 나름대로 애착을 가지고 열심히 하던 일을 그만 둘 때의 아픔입니다.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모세가 자기 평생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여기까지 왔는데, 바로 가나안 입구까지 왔는데 그만두라는 겁니다. 여호수아에게 물려주라는 겁니다. 어쩌면 모세가 그 자리를 넘겨주는 일이 결코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도 모세는 그 일을 기꺼이 순종했습니다. 제게 그런 아픔이 있었던 것이 우리 효자제 일교회 입장에서는 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안 그랬으면 지금도 여전히 그 일에 열을 내고 있었을 테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모세는 하나님의 어려운 명령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가 있었죠? 본문에 그대로 있습니다. 오늘 제목에 붙어 있는 그 말씀 그대로 ‘그만해도 족하다’는 겁니다. 이 표현을 신약에 있는 표현으로 바꾸면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입니다. 하나님께서 네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그만해도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너는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어 안달이지만 그것 안 들어가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가 충분하다는 얘깁니다. 실제로 모세가 하나님께 은혜를 그만큼 받았습니까?

출애굽기 앞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네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내라.” 그럴 때에 모세가 즉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고, 증거를 보여주고, 강압적인 태도로 가라고 해도 안 간다고 얼마나 버텼는지 모릅니다. 결국 어떻게 갔죠? 틀림없는 강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노를 발하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를 발하사’ 더 이상 못 버티고 간 겁니다. 성경은 점잖게 표현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럴 때 흔히 뭐라고 하지요? “이노무 자식...”

하나님이 노를 발하사... 쫓겨났습니다. 그렇게 못하겠다고 버티던 그 모세가 어쩔 수 없으니 정말 쪼다 같이 시작합니다. 정말 맥없이 시작합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몇 번이나 체험했을까요? 열 가지 재앙은 말할 것도 없고 광야생활은 기적의 연속이었습니다. 40년이란 세월을 하나님의 기적 속에 살았던 모세입니다. 우리는 이런 기적을 한 번만이라도 몸소 체험하면 평생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 거라고 기도 많이 하시죠? 우리 교회에는 그런 것 체험하신 분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만 제대로 체험하면 그 하나님을 평생 사랑하며 살 수 있는 놀라운 체험을 모세는 날마다 체험하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네게 준 은혜가 족하다는 말씀이 족할 뿐만 아니라 넘칠 정도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생각해 보면 그 얘기 더 이상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결코 무리가 아닙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무런 불만 없이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먼저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족하다고 할 만큼 받았습니까? 족할 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많이 받아야 합니까? 아직 많이 모자라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인가 생각해 보십시오. 하박국 3장 17절부터 나오는 노래 있죠?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에게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라고 말합니다. 하박국은 지금 자기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없다 하더라도 이미 받은 것만으로도 하나님 앞에서 기뻐할 수 있다고 노래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독생자 예수를 희생시키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합니다. 거기에 비하면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구하는 것들은 너무나 보잘 것 없는 것이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족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데서 가능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물려준 복이 얼마나 큰 것인지 자식들은 잘 모릅니다. 자식이 섭섭해 하는 이유를 보세요. 큰 일로 섭섭해 합니까? 작은 일로 그러니까? 정말 사소한 일로 부모에게 섭섭한 감정을 표할 때가 많습니다. 정말 큰 것은 느끼지도 못합니다. 우리도 그런 때가 많지 않은지 살펴봅시다.

그렇다 해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무하지 않느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겨우 반석을 두 번 치는 일로 인해서 평생 소원이었던 가나안에 들어가지 말라 하는 것은 그래도 너무 하지 않느냐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모세가 알지 못했던 다른 계획을 하나님은 또 갖고 계셨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채 여기서 죽어야 할 이유가 또 있다는 얘깁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잘 설명해 주었습니다.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요, 여호수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모세가 살아 있는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전제가 이미 서 있습니다. 그 율법의 대표자가 모세입니다. 모세가 살아 있는 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여호수아 1장 1, 2절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준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사사대 배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고 합니다. 그냥 건너가라 하면 좋을텐데 그 앞에 단서가 뭐라고 붙어 있습니까? '배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가라는 거예요. 그럼 여태까지 왜 못 갔는데요? 모세가 안 죽고 살아 있었기 때문이라는 느낌을 주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모세하고 무슨 원수가 저서 모세가 죽을 때까지 뽕뽕이를 들게 하고 이제 죽었으니 가라고 하시느냐는 겁니다. 그것은 단순하게 모세 때문에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율법은 우리를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율법을 상징하는 모세가 천국을 상징하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인계해 주어야 합니다. 여호수아, 호세아, 예수는 같은 글자입니다. 즉 예수님을 상징하는 여호수아가 이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그 동안의 공로를 가지고 따진다면 모세만큼 더 큰 공을 세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공로 때문에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모세가 들어갈 수 없는 이유는 모세가 율법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는다라는 사실을 보여 주시기 위해서 모세의 삶 자체를 하나의 시창각 교재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모세가 그렇게 사용되는 것에 대해서 전혀 불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알면 그 모든 것이 은혜가 되는데 모세도 그러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그런 뜻을 가지고 계셨다 하더라도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너무나 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까지 따지신다면 다시 말씀을 드리죠.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소원했던 가나안 땅에 모세는 들어갔습니다. 얼마 전에 한 번 말씀 드렸는데 가나안 땅이 젓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가나안 땅이 젓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그 땅이 젓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 실제로 그렇게 비옥한 땅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가나안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상징일 뿐입니다.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라고 찬송하시죠? 요단강 건너면 어딘데요? 천국이에요? 요단강을 건너면 가나안 땅이죠. 요단강 건너서 들어가는 그 가나안 땅이 곧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모세가 그렇게 보기를 소원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있는 가나안 땅이 아니라 저 천국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가나안입니다. 모세가 그렇게 가고 싶어 했지만 그가 진정으로 두려워 할 가나안은 하나님의 나라요, 바로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진정한 가나안 역시 하나님 자신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한 소원으로 “나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저 땅을 보게 해주옵소서”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안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도 사실은 더 좋은 가나안 땅을 예비해 두시고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비록 내 기도를 아니 들어주신다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더 깊은 하나님의 뜻이 있고 우리가 원했던 것보다 더 큰 복을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향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뿐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모세가 너무 하나님에게 구박을 많이 받았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너무 모세를 야박하게 대했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족할 만큼 은혜를 베풀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동일한 진리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더 이상의 소원이 없어져 버리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를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